차례 Содержание

1. 스마일맨
Человек-улыбка 4

2. 황금인간
Человек-золото 37

3. 항문이 없는 요괴
Чудовище без ануса 48

4.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요괴
Самое красивое в мире чудовище 79

5.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요괴
Самое бесполезное чудовище. 103

6. 우주시대의 환율
Курс валют в космическую эпоху. 124

7. 낚싯대로 낚은 괴생물체
Неведомое существо, попавшееся на удочку . . . 138

스마일맨

"응애앵!"

아이 엄마가 괴로운 얼굴로, 갓난아기의 연약한 살을 꼬집어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곧, TV 앞의 남편에게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아직 멀었어?"

"아이씨, 아직이야! 이건 왜 점점 늦어지는 거야?"

집 안을 울리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부부는 마음이 불편했다. 초조해진 남편은 뚫어져라, TV 속 스마일맨을 쳐다보았다.

TV 화면 속 스튜디오에는 스마일맨, 김남우가 의자에 앉아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김남우의 경직된 표정은, 입 주변에 잔 경련을 일으키며 그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곧, 스태프의 사인을 받고 무겁게 고개를 끄덕거리는 김남우. 흔들리는 동공으로 침을 한 번 꿀꺽 삼킨 뒤.

[흐하... 하... 흐하하하하하하!]

온힘을 다해서 웃었다. 한 번의 큰 웃음 뒤, 눈을 질끈 감고 부들부들 떠는 김남우.

3초 뒤, 눈을 번쩍 뜨며 얼굴 가득 환희에 차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다.

[국민 여러분! 이제 웃어도 됩니다! 하하하하하!]

발표를 확인한 남편이 얼른 아내에게 말하자,

"여보! 스마일맨이 웃었어! 됐어!"

아이를 꼬집던 손을 놓으며, 아이를 달래는 여인.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많이 아팠지? 아이고 빨개진 것 좀 봐!"

남편도 그제야 아이 옆으로 와 긴장한 근육을 풀며, 웃었다.

"휴, 심장 떨려 죽겠네! 보는 나도 이렇게 떨리는데, 저 스마일맨은 진짜 대단해!"

"그러게. 벌서 세 달째지? 이번 스마일맨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발 저 스마일맨이 오래오래 살았으면!"

TV 화면 속, 김남우가 스태프들의 격려와 박수 속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1년 전, 웃는 악마가 나타나 말했다.

[하하하! 웃는 거 좋아하지, 인간들아? 웃음이라는 건 정말로 대단해! 하하하! 한데, 너희 인간들이 공짜로 웃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황당했다. 웃음에 값이 어디 있다고. 그러나 악마의 기준으로 웃음의 값은 곧, 목숨이었다.

[한 달에 100명씩! 매달 첫째 날 아침 8시, 가장 먼저 웃는 100명의 목숨을 가져갈 거야! 하하하!]

이 황당한 이야기에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다. 한데, 그 다음 달의 첫째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이 농담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아침 8시가 넘어가자마자, 전국에서 불특정한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들의 사망원인은 불분명했지만, 겉보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100명 모두,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다는 것.

그때부터 매달 첫째 날 아침 8시가 되면 전국에서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한 번 웃었다고 죽는다니?

그때부터 사람들은 매달 첫째 날 아침이 되면 바짝 긴장을 했다. 절대 아무도 웃지 않았다.

갓난아기들은 계속해서 꼬집힘을 당해야 했고, 어린아이들은 이유도 없이 매를 맞아야 했다.

수면제를 먹고 잠에 빠지는 이들도 있었고,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슬픈 음악을 듣는 등 사람들은 각자만의 방법으로 웃음을 참았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웃음을 참아야 하는가?

답은, 전국에서 100명이 모두 죽을 때까지였다. 한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이 모두 죽었단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 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이었다.

그래서 스마일맨이 탄생했다.

그들은 한 달에 딱 하루를 일하고도, 천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그들이 하는 일은 딱 하나였다.

웃기.

스마일맨은 매달 첫째 날 아침 8시가 되면, 스튜디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한 번 웃는다. 그게 다였다.

그러나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없는 그 프로의 시청률은 역대 최강이었다.

사람들은 스마일맨의 웃음을 확인한 뒤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스마일맨에게 호감을 느꼈고, 스마일맨은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한데,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얼마 못 가 스마일맨이 죽기 때문이었다. 벌써 김남우가 네 번째 스마일맨이었다.

물론, 스마일맨들이 웃는 타이밍을 정하는 시스템은 있었다.

전국에서 웃음 사망자의 소식을 방송국으로 최대한 빠르게 모은 뒤, 사망자가 100명이 넘어가면 그때 웃는 것이다. 그러나 소식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스마일맨은 항상 목숨을 걸고, 웃었다.

네 번째 스마일맨 김남우는, 유일하게 세 달을 버틴 스마일맨이었다.

"형! 멋졌어!"

"수고했다. 남우야!"

예비 스마일맨 공치열과 최무정이 김남우를 웃으며 맞이했다.

김남우는 웃으며 농을 던졌다.

"내 덕에 웃는 거야. 웃음값 내놔."

"에이, 돈은 형이 제일 많이 벌면서!"

"이 자식이? 네가 누구 덕분에 돈 버는지 몰라? 내가 죽었어봐, 인마! 너 카메라 앞에서 오줌 지렸을 걸?"

"헤헤헤. 맞네. 오래오래 살아, 형!"

스마일맨은 3인 체제로 운영이 되었다. 스마일맨, 예비 1번 그리고 2번. 둘은 스마일맨이 죽으면 다음 스마일맨이 되어 웃어야 했다. 예비 스마일맨의 월급은 500만원이었지만, 앞의 스마일맨이 죽지 않는 이상 김남우의 말대로 그 덕분에 돈 버는 직업임에는 틀림없었다.

아웅다웅하는 둘을 보며 최무정도 끼어들었다.

"나는 상관없는데. 어차피 남우가 죽으면 다음은 치열이가 할 테니까. 하하."

"와, 악마다! 진짜 악마가 여기 있었네!"

농을 던지던 김남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스마일맨이 웃어야 한 달이 시작된다! 우린,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

끄덕이는 둘. 김남우가 비장하게 말을 이었다.

"선임 스마일맨들과는 달리,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남는 걸 보면 이제 이 시스템이 제법 안정화됐나 봐. 초반이야 아직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선임들이 죽었다지만... 이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모든 정보는 정확히 들어오고 있고, 벌써 세 달을 버텼으니까! 난 아마, 안 죽을 거야! 그럼! 절대로 안 죽어!"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눈을 굳건히 빛내는 김남우. 둘도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김남우의 죽음은 김남우뿐만이 아니라, 둘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으니까 말이다.

"응애~"

"여보! 아직도 멀었어?"

"아 씨! 사람들이 잘 안 죽나 봐!"

아침 11시. 벌써 세 시간째 스마일맨 김남우가 웃고 있지 않았다.

TV를 보는 전국의 사람들이 스마일맨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스튜디오. 이미 세 시간 동안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던 김남우는 미칠 것 같았다. 곧 옆의 스태프를 향해 조용히 물었다.

"몇 명입니까?

"아직 98명이요!"

악마의 저주가 시작된 첫 달에는 1분도 안 되어 100명의 웃음 사망자가 나왔었다. 다음 달에는 좀더 걸려 10분. 그다음에는 한 시간이 넘더니, 두 시간, 이제는 세 시간이 넘도록 웃음 사망자 100명이 채워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웃음을 참고 있는 것이다.

정말 악마적인 저주였다. 전국의 사람들이 실수로라도 누군가 웃어서 얼른 죽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악마적이었다.

세 시간 동안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김남우만큼, 똑같이 세 시간 동안 긴장을 유지하며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괴로웠다.

김남우가 심각한 얼굴로 땀을 닦아낼 때, 스태프의 신호가 왔다.

"100명! 됐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김남우,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했다. 곧,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벌리고,

"하..."

웃으려다 멈칫! 김남우는 찜찜한 얼굴로 미간을 좁혔다. 예감이 좋지 않았던 것일까, 고개를 돌려 스태프에게 한 번 더 물었다.

"100명 확실히 됐죠?"

"예! 전국에서 100명의 사망자 제보가 들어왔어요!"

다시 고개를 끄덕이는 김남우. 정면을 바라보며 웃으려던 그때, 모니터를 바라보던 스태프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 101명?"

"뭐?"

고개가 돌아가는 김남우. 모니터를 바라보던 스태프의 눈빛이 흔들렸다.

"102명째 제보가!"

"..."

김남우는 식은땀이 흐르며 아찔해졌다. 만약 방금 전 웃었다면 사망했을 것이다. 김남우의 목소리가 톤이 높아졌다.

"어떤 새끼들이 가짜로 제보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요! 거의 정확한 정보들만 모일 텐데?"
안절부절못하는 스태프와 인상을 쓰는 김남우. 10분이 더 흐르고, 김남우가 물었다.
"102명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죠?"
"네, 네!"
다시 긴장하며 카메라를 응시하는 김남우. 입이 떨어지질 않지만, 스튜디오의 모두가 김남우가 웃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웃어야 했다. 그것이 스마일맨의 일이었다.
다시 한 번 크게 심호흡을 하며 결의를 다지는 김남우, 곧!
"하... 하... 하하하하하하!"
대차게 웃은 뒤, 두 눈을 질끈 감았다.
3초 뒤, 눈을 뜨며 긴 숨을 내뱉는 김남우.
"휴, 국민 여러분! 이제 웃으셔도 됩니다!"
곧, 늘 그래왔듯이 스튜디오에 박수와 환호가 터지며 모두 김남우를 격려했다.
그러나 카메라 앞을 벗어나는 김남우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대기하고 있던 공치열과 최무정도 심각한 얼굴로 김남우를 맞이했다
"형!"
"도대체 어떤 새끼들이 가짜로 제보를 하는 거야? 남우야! 살아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
둘이서 욕을 하며 떠들어대도 김남우의 굳은 얼굴은 펴지질 않았다.

"..."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 김남우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주변 스태프들. 김남우가 다시 한 번 물었다.
"웃음 사망자가 몇 명이라고요?"
스태프가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113명이요..."
"..."

김남우의 표정이 황당함을 넘어서서 심각해졌다.

시간은 이미 1시를 넘어서, 저주가 시작된 지 다섯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고, 그 사이 제보된 웃음 사망자는 113명이었다.

결국 폭발한 김남우는 카메라 앞에서 벗어나 스태프의 자리로 달려갔다.

"어떻게 113명이 나와요? 확실한 제보들만 모은 거 맞습니까?"

"그게... 전부 확실히 사진까지 보낸 제보들이라..."

어쩔 줄을 몰라 하던 스태프가, 모니터로 제보 글들과 사진들을 보여주였다. 곧 대기 중이던 공치열과 최무정도 다가왔고, 셋은 눈에 불을 켜고서 제보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스태프가 사진을 넘기며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관, 병원을 통한 공식적인 제보와, 시민들의 제보들 중에 사진이 포함된 제보들만을 추린 게 113건이에요."

제보된 사진 속의 사망자들은 환하게 웃는 얼굴로 죽어 있었다. 사진들을 보던 최무정이 말했다.

"...저들이 모두 죽은 게 맞긴 한 거야? 죽은 척, 저런 표정을 짓고서 사진을 찍어 보낸 거 아냐?"

"?"

"!"

충격으로 소름이 돋은 셋. 곧 최무정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이제 알겠어. 사람들은 스마일맨의 목숨 따윈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저, 어서 이 빌어먹을 상황이 끝나면 장땡인 거야! 세 시간, 네 시간씩 긴장하고 있는 게 짜증 나서! 이 상황이 언제 끝나는지를, 스마일맨의 목숨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라고!"

"..."

김남우의 얼굴이 굳어버리고, 공치열의 얼굴이 공포로 부들부들 떨렸다.

"그, 그럼 어떡해요? 형, 어떡해?"

"..."

말하는 사이 모니터로 또 한 건의 제보가 뜨자, 욕설을 내뱉는 최무정! 굳은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던 김남우가, 다시 의자로 걸어갔다.

"혀, 형?"

"남우야?"

카메라 앞 의자에 앉은 김남우가 중얼거렸다.

"스마일맨이 웃어야 한 달이 시작된다."

"..."

"스마일맨이 웃어야 한 달이 시작된다. 스마일맨이 웃어야 한 달이 시작된다. 스마일맨이 웃어야..."

카메라를 응시하며 호흡을 하는 김남우. 하지만 자꾸 마른침을 삼켜댔다.

한참을 눈을 감고 호흡을 조절하던 김남우가 눈을 떴다. 경련을 일으키는 입꼬리를 천천히 올리는 김남우.

"하... 하... 하하하하하하!"

대차게 웃은 뒤,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였다.

3초 뒤, 두 눈을 뜨며 고개를 번쩍 드는 김남우.

김남우의 얼굴에 소름 끼칠 정도로 환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곧 눈이 뒤집히고 말았다.

"으... 으... 어억!"

"나, 남우 형!"

"남우야!"

분주하게 모여드는 사람들 사이로, 김남우의 숨이 조금씩 멎어들었다. 환한 미소와 함께.

"남우 형!"

눈물을 흘리는 공치열과, 발악하는 최무정. 스태프들이 김남우의 시신을 수습해서 옮기고, 그곳이 눈물바다가 되었을 때,

언제 스튜디오에 들어온 건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그곳으로 와서 말했다.

"다음 스마일맨 준비해주십시오."

"!"

두 눈을 부릅뜨며 부들부들 떠는 공치열. 최무정이 악다구니를 썼다.

"야, 이 씨발 새끼들아! 이거 안 보여? 지금 이 상황에 뭐라는 거야, 이 새끼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다음 스마일맨 준비해주십시오."

"뭐라는 거야!"

"당신들이 그 월급을 받고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스마일맨은 웃어야지! 웃는 게 일인데."

강압적인 사내의 말에 최무정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곧, 사내의 손짓과 함께 공치열이 카메라 앞으로 떠밀렸다.

"어... 으으!"

"치열아! 야, 이 새끼들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는...!"

최무정이 반항해보지만, 사내들에게 저지당했다. 그사이에 공치열은 카메라 앞 의자에 앉게 되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흘리는 공치열. 카메라 앵글 밖에서 검은 양복의 사내가 재촉했다.

"웃으십시오. 그게 스마일맨의 일이잖습니까."

공치열의 불안한 고개가 사내를, 최무정을, 김남우의 시체가 있는 쪽을 향해 움직였고, 사내는 무감각하게 말했다.

"스마일."

부들부들 떨며 카메라를 보는 공치열.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겨우 작은 목소리를 짜냈다.

"하아..."

경직된 표정의 공치열. 사내가 다시 재촉했다.

"밝게 웃으십시오."

이를 악문 공치열은 발악하듯 웃어젖혔다.

"하하하하, 하하!"

한차례 웃음을 터트리고 숨을 멈춘 채 굳어버린 공치열. 3초 뒤.

"하아~"

참았던 숨을 내쉬자 몸이 풀려버렸다. 잠시 멍하니 숨을 내쉬던 공치열이 카메라 쪽을 보며 말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웃으셔도 돼요..."

힘없이 카메라 밖으로 벗어나는 공치렬과 최무정의 눈이 마주치고, 둘은 김남우의 시체 앞에서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내 월급이 2천만 원으로 늘었네? 하하."

웃기지도 않는 말을, 웃으며 내뱉는 공치열.
최무정이 심각한 얼굴로 한쪽을 바라보았다.
"예비 스마일맨이... 100명이라고?"
그곳에는 불안한 표정을 한 사람들 100명이 모여 있었다. 최무정이 이죽거렸다.
"스마일맨이 아니라 그냥 제물이군. 이제는 아예 스마일맨으로 100명 목숨을 채우려나 보네."
곧, 최무정이 공치열을 바라보며 굳은 얼굴로 말했다.
"절대로 웃지 마! 사람들 제보 말고, 경찰에서 100명을 확인해줄 때까지 절대 웃지 말라고! 알았지?"
확답을 못하는 공치열의 얼굴이 참담했다.

"응애~"
"여보! 아직이야?"
"염병! 저 새끼 아직도 안 웃고 있어! 그냥 웃지, 좀!"
TV 속 스마일맨 공치열을 바라보는 부부의 얼굴이 짜증으로 가득했다.
"벌써 몇 시간째야? 웃으라고 있는 새끼들이! 월급도 많이 받아 처먹으면서 말이야! 웃든가, 뒈지든가 뭐라도 좀 빨리 하라고!"

의자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공치열. 이미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카메라 밖에서 그를 위협하고 있었다.
공치열이 힘없이 스태프에게 물었다.
"제보가 몇 명이라고요?"
"그...250명이요..."
말을 하는 스태프조차 미안해했다.
공식적인 제보를 제외하고, 사람들이 제보한 사진 속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죽었거나, 죽은 척하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 중얼거리기 시작하는 공치열.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두 250명이 죽었다고? 원래는 100명이 죽는 거니까, 적어도 150명은 가짜 제보를 했다는 거잖아? 나보고 죽으라고? 와, 이거 참 웃긴데? 그러니까 스마일맨을 죽여서 본인들이 살고 싶다는 거 아냐? 되게 웃기다. 이거 정말 웃긴데? 스마일맨 죽으라고 일부러 죽은 척

사진까지 찍고 말이야? 사람들 정말 웃기다. 우리나라에 웃긴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웃기니까, 도저히 안 웃을 수가 없네? 으하. 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미친 듯이 웃어대던 공치열. 환한 미소와 함께 눈이 뒤집혔다.

“으... 으어... 어...”

공치열의 숨이 멎고, 침묵에 휩싸인 스튜디오. 곧, 검은 사내들이 빠르게 공치열의 시신을 옮겼다. 그러고는 무덤덤하게 말했다.

“다음 스마일맨.”

“최무정이 사라졌습니다!”

“뭐야?”

사내는 인상을 썼다.

“스마일맨으로 돈, 명성은 다 챙겨놓고, 자기 차례가 되니 도망을 가시겠다? 그렇겐 안 되지. 수배령 내려! 무조건 찾아내! 그리고...”

사내의 고개가 100여 명의 사내들에게 향했다.

“다음 스마일맨.”

최무정이 카메라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카메라 밖에서 최무정의 주변을 물샐 틈 없이 지키고 서 있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

사내 중 하나가 시계를 확인하더니, 웃으며 최무정에게 말했다.

“10분 남았다, 도망자 스마일맨. 하하. 자진해서 돌아올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그러나 무심한 표정의 최무정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10분 남았네.”

사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최무정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인상을 쓰다가, 침묵했다.

아침 8시가 다가오자, 전국의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 스마일맨 최무정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댔다.

"제발 이번엔 빨리 좀 100명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예비 스마일맨 많은 거 봤잖아? 대충 저 스마일맨들까지 합쳐서 빨리빨리 100명 좀 채우면 안 되나?"

사람들은 벌써부터 웃지 않아야 한다는 긴장과 짜증 속에서 TV 속 스마일맨만을 쳐다보았다. 드디어 8시가 되자, 전국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웃음을 참으며 TV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TV 속 최무정이 양 손바닥을 머리 높이로 들어올렸다. 그 자세로 가만히 카메라를 바라보는 최무정.

"?"

TV를 보던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을 때쯤, 최무정이 두 손으로 강하게 짝, 박수를 치자,

방송 화면이 전환되었다.

[하하하하하하!]

갑자기 화면에 코미디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뭐, 뭐야?"

"워워웍?"

최무정의 박수 이후로, 스튜디오는 난리가 났다.

당장에 검은 사내들이 당황해 소리쳤다.

"뭐야? 무슨 일이야?"

"방송이! 코미디 영상들이 전국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급히 최무정을 돌아보는 사내. 달려들어 최무정의 멱살을 붙잡았다.

"너, 너, 이 새끼? 뭐 한 거야?"

그러나 곧, 사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야 했다.

"하하하하하하하!"

"?"

큰 소리로 웃어버린 최무정! 사내가 놀란 눈으로 최무정을 바라보는데!

3초가 지난 뒤에도, 최무정은 멀쩡했다.

혼란스러워하는 사내를 향해, 최무정이 말했다.

"스마일맨이 웃어야 한 달이 시작된다! 스마일맨 임무 완료!"